발간자료

• **조선 Weekly:** 신조선가지수 184.42p로 0.08p 상승. 중고선가지수 191p로 1p 상승. 한국의 수주들: HD현대삼호는 2028년 납기 LNG선 1척을, 250.5백만달러에 수주. 한화오션은 지지난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VLCC 2척을 수주. 2028년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129백만달러로 양호. 2029년 LNG 강력: LNG 신조 수요가 강해서, 2029년 슬롯이 빠르게 소진 중이고, 2026년 중반부터는 2030년 인도물을 마케팅할 수 있다는 주장. LNG 장기공급계약들 지속 체결 중.
(조선/방산/기계 최광식)

• **자동차 Weekly:** 미국 정부는 CAFE(기업 평균연비 규제) 스탠다드 대폭 완화. 2031년 기준 요구 연비를 리터당 21km에서 14km로 완화. 현재기준 미국 평균 연비는 17km. 현대차와 기아 각각 11월 미국 판매량은 8.2만대, 7.2만대를 기록. 미국 M/S는 각각 6.5%, 5.7%를 기록해 합산 M/S 12.1%에 해당.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가 M/S 반등의 근거. LG그룹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데이터센터 솔루션 턴키 수주. LG에너지솔루션의 ESS 포함해, 조단위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.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빅테크 업체가 직접 ESS 수주에서 공개된 것은 처음.
(자동차/이차전지 유지웅)

• **브이엠_BUY/4.3만원:** SK하이닉스의 성장 과정에서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전공정 대표 장비사. 1H26까지 국내 장비사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실적 모멘텀 예상. 대장주로 리레이팅 유력한 국면. 26년 신규 투자는 HBM 기반 M15X 중심으로 진행 → 가시성 높은 확정적 투자. 2H26 중 용인클러스터 추가적인 신규 투자가 확인될 전망 → SKH Pure Value-Chain 으로서 최소 향후 2년간 수혜 담보. 낙관적 내생변수 ① 공정 및 장비 M/S 확대. Metal 공정 내 M/S 100% 도달 & Poly 공정 내 다수의 신규 공정 테스트 진행 중 → 28년 공정 M/S 20% 중반 확대 기대(현재 10% 수준). ② 단가 상승(신규 WS 장비). WS 장비 웨이퍼 데모 테스트 시작. 기존 WH 대비 WS 장비 단가는 40~50% 상승 → 외산 장비와 비교했을 때 고객사 입장에서 가격 매력도가 높은 수준, 27년 용인 클러스터 투자부터 공급 유력.
(반도체/소부장 고영민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

투자등급 비율

BUY : 89.4%	HOLD : 10.6%	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·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·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~ +15% 미만.
·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.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